

요약

중국은 2026년 2월 보험을 활용해 첨단기술산업의 위험을 분산·관리하기 위한 「기술보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함. 동 정책은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보장, 하이테크 중소기업 지원, 기술 혁신 전 과정에 걸친 보험 정비, 보험자금 투자 확대를 공·사 협력 체계로 추진함.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은 관련 위험 인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위험평가 역량의 한계와 보험 수요·공급 간 불일치 등 구조적 과제도 존재함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2026년 2월 보험을 통한 기술 위험 분산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보험의 위험 인수 기능을 기술 혁신 지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공식 편입함
 - 기존에는 중국의 기술 혁신 지원 논의가 '중국제조 2025' 정책 아래의 보조금·정책금융·세제 지원 등 직접 지원 방식에 집중되어 왔으나, 2026년부터는 보험을 통한 위험 분산이 이를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공식 편입됨
- 중국의 기술보험¹⁾은 2006년 최초 정책 지침 발표를 기점으로 약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2026년 2월 4개 정부 부처 공동 정책 발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제도로 격상되었음
 - 2006년 과학기술부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하이테크 기업 보험서비스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기술보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 베이징·우한·선전 등 6개 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함
 - 이후 2010년 「기술보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 2024년 「하이테크 기업 전 주기 금융서비스 강화에 관한 통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기술보험의 적용 대상과 상품 체계가 점차 확대·정비됨
 - 2026년 2월 중국 정부는 기술보험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술보험을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으로 공식화하고, 분산 운영되던 관련 제도를 전국 단위 정책 체계로 통합·격상함
- 중국 정부는 「기술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보장, 하이테크 중소기업 지원, 기술 혁신 전 과정의 보험 정비, 보험자금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4개 핵심 조치를 제시함²⁾
 - 첫째,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재보험 등을 통해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연구기관, 중대 연구시설, 첨단 연구장비, 핵심 기술인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 대한 보험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 둘째, 하이테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실패, 기술사업화 지연, 지식재산권 침해, AI 시스템 책임 등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청구가 용이한 보험상품 개발과 핵심 특허·상표 관련 보장 강화를 보험회사에 요구함

1) 중국의 기술보험은 과학기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 주체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연구개발비 손실, 사업화 비용 손실, 기술 성과 응용 과정의 위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보장 범위에 포함함

2)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2026. 2. 23.), “科技部 金融监管总局 工业和信息化部 国家知识产权局印发《关于加快推动科技保险高质量发展 有力支撑高水平科技自立自强的若干意见》的通知”

- 셋째, 하이테크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손실보험, 기술 사업화 비용 손실보험, 1호기·초도물량 종합보험, 지식재산 보험 등 단계별 보험상품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아울러 AI,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수소에너지·핵융합, 지능형 휴머노이드 등 첨단기술 분야 특화 보험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고위험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위험준비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함
- 넷째, 대규모 운용자산을 보유한 보험회사가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벤처투자 기관 지원 등을 통해 보험자금이 기술 혁신 분야로 유입되도록 함

○ 위 정책은 기업·보험회사·재보험회사·정부가 위험을 단계적으로 분담하는 공·사협력형 위험 분산 구조를 전제로 하며, 민영보험시장만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초고위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종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³⁾

- 핵심 과학기술 분야는 개발 기간이 길고 실패 시 손실 규모가 커 통계적 예측과 민간 단독 인수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험시장보다 더 다층적인 위험 분담 체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기업은 보험료 납부와 자기부담을 통해 1차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재보험시장 활용 또는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인수 위험을 분산하며, 시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핵심 과학기술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보조, 정책성 재보험 등을 통해 보완적으로 개입함
 - 예를 들어, 베이징시는 휴머노이드 기업의 보험료를 50%, 연간 최대 100만 위안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Ningbo시는 보험료의 80%를 보조하고 있음

○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은 개별 보험 출시와 공동인수제도 구축을 병행하면서 위험 인수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음(〈표 1〉 참조)

- 중국인민손보는 연구개발·파일럿 비용 보상보험, eVTOL 보장보험, 지능형 휴머노이드 보장보험 등을 통해 첨단 장비 제조, 저고도 항공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형 기술 분야의 전 주기 위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태평양손보는 기술 선도 하이테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단계의 비용 및 실패 손실을 보장하는 기술 실험 파일럿 종합보험을 출시하고, 베이징·상하이·저장 전문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보험회사들은 개별 보험상품 출시와 함께 공동인수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집적회로, 의약품 연구개발, 도심항공교통 분야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단일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첨단기술 복합 위험을 분산하고 있음
- 다만, 기술보험의 빠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급·수요 양면의 구조적 수급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위험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전통적인 보험계리모델만으로는 정확한 위험 평가와 요율 산정이 어려우며, 기업의 기술 데이터 제공 제한이 맞춤형 상품 설계를 추가로 제약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복잡한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하이테크 중소기업의 가입 유인이 낮아지고 있음

3) Science Portal China(2026. 3. 25), “中国の科学技術保険制度について”

〈표 1〉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기술보험 상품 및 공공인수제도 사례

보험회사	상품·조직명	보장 범위 및 내용	주요 특징
중국 인민손보	연구개발·파일럿 비용 보상보험	첨단장비 제조기업 연구개발·파일럿 단계 비용 손실	연구개발 중단 전제 없이 지급 → 보험금 수령 중에도 연구 계속 가능, '보험+신용대출' 모델 연동
	eVTOL 보장보험	전동수직이착륙기(eVTOL) 전 주기 위험	업계 최초 eVTOL 전용보험, eVTOL 개발사와 공동 개발, 위험 보장+기술 지원 일체화 서비스
	지능형 휴머노이드 보장보험	품질보증 기간 외 위험, 임대 로봇 충돌·전기 고장·사이버 보안 전주기 위험	누적 1만 대·2억 위안 이상 보험가액 제공, 2025년 말 최초 출시 후 2026년 최초 보험금 지급 완료
중국 태평양손보	기술 실험 파일럿 종합보험	기술 선도 하이테크 중소기업 파일럿 단계 비용 및 실패 손실	파일럿 단계 맞춤 보장, 베이징·상하이·저장 전문 혁신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네트워크 구축
중국 인민손보 등 7개 보험회사	공공서비스 AI 데이터 종합보험	AI 시스템 데이터 손실·유출, 알고리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장애	공공서비스 분야 AI에 대한 최초 보험 사례, 데이터·알고리즘 복합 위험 포괄
18개 보험회사	집적회로 공동인수제도	집적회로 기업 설비 손해·사업 중단 등 복합 위험	2021년 상하이 출범, 2025년 말까지 33개 기업에 누적 보험가액 6.5조 위안 제공
중국 인수손보 등 복수 보험회사	의약품 연구개발 공동인수제도	실험실→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임상(I~III상)→NDA(신약 품목허가 신청)→출시→지식재산 보호 전 주기	2025년 6월 우한 출범(전국 최초), IND·임상·NDA 3단계 보장은 국내 공백 해소, 중재손보와 중국재보험 협력
19개 보험회사	도심항공교통(UAM) 공동인수제도	eVTOL·드론 등 저고도 항공 모빌리티 관련 복합 위험	2025년 8월 충칭 출범(전국 최초), 19개 보험회사 참여, 16개 기업과 계약, 보험가액 6,115만 위안 제공

자료: 新浪财经(2026. 5. 9.), “七项全国首创科技保险成果集中发布”; 东方财富网(2026. 5. 10.), “科技保险‘破圈’爆发”; 经济日报(2026. 5. 11.), “科技保险从有保障迈向高质量”; 中国金融信息网(2026. 4. 24.), “险企积极布局机器人保险”; 第一财经(2026. 4. 1.), “AI领域迎来专属科技保险”; 中国金融新闻网(2025. 7. 10.), “全国首个药品中试共保体成立”; 新浪财经(2026. 3. 18), “重庆构建全国首个低空经济领域责任保险强制投保机制”